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30주년 기념학술회의

교구장(위원장) 기조연설

##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역사적 의미와 소명

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주일에 귀한 시간을 쪼개어 이 기념학술회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평화를 빕니다.

올해로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를 설립한 지 30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이 학술회의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걸어왔던 민화위 여정을 종합적으로 되돌아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신 세 분의 발표자분들은 우리에게 서울대교구 민화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제시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세 분 전문가분들의 발표를 듣기 전에 서울대교구 민화위의 역사적인 의미와 소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그때까지 민족의 평화와 화해, 일치를 이루지 못한 현실에 대해 뼈아픈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민화위 발족 당시 취지문을 살펴보면, “교회는 민족공동체의 화해와 일치에 기여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참회와 용서의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민족 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고, 불화를 화해로, 분단을 일치로 이끌어나가”고자 한다고 발족의 의미와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남북한 상황을 돌이켜 살펴보면, 민화위 발족의 배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90년대 초반 북한은 정치와 경제 시스템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것이지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이유는 매우 복잡적입니다. 1989년 그동안 강력한 정치·경제적 지지기반이었던 구소련의 와해로 대표되는 공산권 붕괴가 직접적으로 북한 체제에 충격을 주었고, 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상황에서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북한 사회 전체가 말하자면 맨붕에 빠지면서 국가 운영 체제가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 그 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북한 사회에 미친 영향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되자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었습니다. 식량난으로 인해 약 33만에서 60만 명에 이르는 북한 주민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 지역을 탈출한 탈북민의 숫자가 급증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처럼 피폐해진 북한 주민들의 삶에 우리 교회가 형제적인 관심을 회복하고 사랑을 나누자는 그러한 자각과 각오에서 저희 서울대교구 민화위가 출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립 취지에 맞추어 서울대교구 민화위는 지난 30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기도’, ‘나눔’, ‘교육’이라는 3가지 지향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모색해 왔습니다.

우리 민화위가 출범한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남북한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1995년 3월 7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가 처음으로 봉헌된 이래,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되는 ‘화해미사’는 지금까지 지난 화요일 1,468차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이 미사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바치는데, 이 기도문은 1995년 8월 평양의 장충성당 교우들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함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구하는 마음을 담아 바치기로 약속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기도 운동과 함께 우리 민화위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나눔활동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1996년부터 시작한 ‘북녘 형제와 국수 나누기 운동’을 들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북녘의 형제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갖자는 의도에서 시작한 이 나눔 운동들은 남북 관계의 부침과 함



께 ‘북한 퍼주기’ 논란에 휩싸여 사회적인 동력이 점차 악화되었으며, 7~8년 전부터는 모든 공식적인 지원 사업들이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에도 북한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소식들을 접하고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했지만, 현재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에 큰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 민화위가 추진한 교육·연구 활동은 ‘민족화해학교’를 개설하여 북한 체제와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기 시작했고, 우리 교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활동과 함께 다양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교회 안에서 남북 화해와 일치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 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민화위의 지난 30년을 간략하게 돌아보면서, 그동안 남북 관계와 우리 사회에 상당한 변화가 많이 있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들도 적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남북 당국이 휴전 상황에서 서로를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상대로 인식하고 적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며, 북한 일반 주민들의 삶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점도 여전히 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변화한 부분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무장 완성을 주장하고 핵 능력 고도화와 전쟁 능력 강화를 강조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와의 관계를 적대적인 국가관계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고 또 민간 부문을 포함하여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도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가리지 않고 대규모 군사력 확장 전략을 진행해 왔습니다. 남북 모두 상대를 군사력으로 압도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 노력은 오히려 자신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이른바 “안보 딜레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한반도에는 평화로운 방법이 아닌, 무력에 의한 평화가 마치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현상은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이는 남북 간의 화해와 일치를 목표로 설립된 우리 민화위의 소명을 달성하는데 심각한 도전 과제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학술회의에서 여러 전문가분의 식견과 지혜를 모아 현명한 해법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북미 간의 대화 재개 가능성과 남북 관계의 개선 가능성이 조금이나 점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그러

한 기대감과 함께, 이번 달에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남북 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서 남북 관계가 부분적이거나 복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의 씨앗을 품게 됩니다. 최근 남북이 휴전선 일대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확성기를 중지한 것은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희망합니다. 평화는 먼저 손 내밀고 양보하는 쪽이 있어야 진전을 이룰 수 있으며, 훼손된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대가 우리의 소망처럼 빠르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남북 평화와 화해·일치를 위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평화의 실현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첫째가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우리 곁을 떠나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10여 년 전에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저희에게 ‘평화’에 대해서 들려주신 귀중한 말씀을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하나의 덕목으로서 자제와 관용의 수양을 요구합니다. 정의는 우리가 과거의 불의를 잊지는 않되 용서와 관용과 협력을 통하여 그 불의를 극복하라고 요구합니다.”라고 교황님께서는 2014년 8월 청와대 연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황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용서야말로 화해로 이르게 하는 문임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남북이 서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당신의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장인(peacemaker)’으로 거듭 태어나길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평화의 장인으로서 “평화로 가는 여정은 사회의 동질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합당한 관점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도록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결코 그가 한 말이나 행동에만 국한하여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이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하느님 약속을 보고 그를 소중히” 여길 것을 권고하셨습니다(「모든 형제들」, 159쪽). 북한에 대한 인식, 교류·협력 방식 등과 관련하여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배척하고 극단적으로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조언고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새롭게 하느님께서 뽑아주신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도 지구촌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과 참상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평화를 호소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평화는 “화해와 용서, 새 페이지를 열고 다시 시작할 용기”라고 강조하셨습니다(‘동방 교회들의 희년’ 행사 참석자들에게 행하신 레오 14세 교황의 연설, 2025년 5월 15일). 레오 14세 교황께서는 또한, “평화는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귀 기울이고 그들에 대해 말하는 방식에서 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 “요란하고 강압적인 소통이 아니라 경청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약자의 목소리까지 모을 줄 아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언론 종사자들에게 행하신 레오 14세 교황의 연설, 2025년 5월 12일).

다음으로, 우리 교회는 북녘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형제애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연민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저는 평양교구장 서리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매일 기도 시간에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면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총이 가득하게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기도와 함께 북녘 형제자매들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우리들은 북한 주민들의 삶이 점차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도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2016년부터는 강력한 경제제재가 국제적으로 부과되었고,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국경을 봉쇄하면서 최근까지 북한의 경제 상황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버금갈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내 취약계층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인 지원단체조차도 북한 지역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호소할 만큼, 북한당국은 우리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어떠한 도움과 손길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서울대교구 민화위는 북한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동포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접촉에 좀 더 포용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과 교류를 위해서 북한의 문을 여는 작업은 당분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교회 안팎의 많은 분께 기도와 지혜를 청하

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구성원 각자가 북녘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형제애에 기초한 연대 의식을 되살려서 하느님 안에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국 방문을 마치시면서 이곳 명동성당에서 미사 강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끝맺을까 합니다. “화해, 일치, 평화라는 하느님의 은혜들은 이러한 회심의 은총과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심이란,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국인으로서, 이제 의심과 대립과 경쟁의 사고방식을 확고히 거부하고, 그 대신에 복음의 가르침과 한민족의 고귀한 전통 가치에 입각한 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요청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명동성당 평화와 화해의 미사 강론, 2014.8.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적대감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 실천을 위한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 교회의 주보이자 평화의 모후이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빌어 주소서!  
아멘.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대주교 정 순택 베드로**